

제12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취지문

2020년 제12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우리 사—이 괜찮아요?: 재난을 마주한 우리의 '연결'과 '거리'

코로나19가 불러온 급격한 삶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어떤 내일을 준비하고 있나요? 코로나19와 관련해 청소년은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수능 연기에 영향받는 '학생'으로만 호명되지만, 재난 속에서 청소년은 '학생'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알바를 잘리게 된 청소년의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요?

집콕하며 겪는 관계의 단절과 불안함이 감염병의 위험보다 더 큰 재난처럼 느껴지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코로나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로 더 이상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된 청소년 예술가의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요?

2020년 창의서밋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의서밋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모인 펠로우*들은 각자가 느끼는 재난의 모습과 영향력이 다름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해, 각자의 거리 속에서 어떤 연결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나눌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커다란 문제의식 중 하나는,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택배노동자의 노동처럼 보이지 않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의 연결은 서로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거리를 두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어쩌면 우리 사—이의 간극이 새로운 사이(관계)를 만들어갈 계기가 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난을 마주한 지금, 우리의 사이는 괜찮은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이여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의서밋 펠로우는 청소년의 목소리와 이슈를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창의서밋에서 발표하고 진행하는 청소년 파트너입니다. 올해는 6팀의 펠로우가 선정돼 워크숍, 수다회, 토크쇼,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6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